

지역 소식통

정읍 통계연보 발간

정읍시는 시정 기본계획 수립과 업무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읍시 대표 기록물인 '정읍 통계연보'를 새롭게 공표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간된 '제25회 정읍 통계연보'는 16개 분야 227개 항목과 부록 11개 항목의 지역 기초자료가 수록됐다.

이번 통계연보는 인구와 출생, 결혼, 상수도 보급률, 지방세부과, 건축 허가 등 정읍시 주요 현황을 그림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정비에 힘을 쏟았다.

또, 행정구역과 면적, 기상개황, 농업 사업제, 교육, 자동차등록, 재정 등 10개의 주요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픽을 활용해 시각화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국정기념일 제정과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정읍의 대표축제, 정읍 관광 및 동학농민혁명 발자취안내도, 정읍 9경 등을 표지에 디자인했다.

시는 정읍시 홈페이지(http://www.jongup.go.kr)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지역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독서 활동 지원 도서 대출 예약제 운영

정읍시가 홈페이지(lib.jongup.go.kr)를 통해 도서 대출을 하는 도서 대출 예약제를 운영한다.

코로나19로 도서관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도서 대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임시 조치다.

도서 대출 예약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 휴관 종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미리 홈페이지 통해 도서를 신청하고 다음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도서관을 방문하면 무인 반납함이나 안내데스크 등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앙도서관과 신태인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14개소 어디에서든지 수령이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축산악취 해법모색

과학기술 활용 농·생명분야 R&D 개발비 지원키로 인프라 확충 위주서 벗어나 지역 현안 해결 '팔건어'

정읍시가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소재한 국책연구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의 과학 기술을 활용해 축산악취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섰다. 관련해 시는 지난 17일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위원장 유진섭)는 '2020년 농·생명분야 R&D 지원사업' 심의를 가지고 3개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을 확정했다.

농·생명분야 R&D 지원사업은 기존의 시설 등 인프라 확충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 문제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R&D 투자 확대 사업이다.

이날 확정된 3개 사업은 ▲전자선 가속기 활용 악취저감 기술 개발 ▲구절초 부산물의 고체발효를 통한 기능성 사료 첨가제 개발 ▲폐지코로나 천연동물약품 개발연구 사업이다.

시는 올해 3개 사업에 각 1억 원씩 총 3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첫째로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이 제안한 폐지코로나(FPD) 항바이러스 후보 소재에 대한 천연동물약품 개발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로 폐지코로나 대상의 항바이러스 후보 소재에 대한 천연동물약품 개발에 양돈농가 공급을 목표로 한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 우리 시는 지역 중심의 R&D 사업을 위한 예산을 점진적 확대해 지역 현안과 연계·해결하겠다"며 "더불어 창업 생태계 구축, 특구 연계 기업 유치에 밀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인문·역사분야 창의인재 육성' 6곳 선정

학교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정읍시가 지역 내 인문·역사 자원을 계승해 발전시킬 미래세대 주인공 육성에 나섰다.

지역 내 초·중·고 학생들의 인문학적 지식과 소양을 갖춰 정읍의 풍부한 인문·역사 자원을 지역을 넘어 세계로 알리겠다는 취지다.

관련해 시는 '인문역사 분야 창의인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인문역사 분야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지역 내 6개 초·중·고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는 외부 전문가 초청 강사비와 인제 육성에 필요한 프로그램비, 기타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운영비 등 학교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에 따르면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선정됐다. 역사 분야 ▲동초등학교 '샘골 내

골! - 샘골따라~ 역사따라~' ▲태인고등학교 '태인선비문화 본류(本流)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인문 분야 ▲왕산여자중학교 책 속에서 삶을 찾다 ▲서영여자고등학교 '은 힘으로' 학생 인문 책쓰기 프로그램이 인문·역사분야에는 ▲수곡초등학교 나를 알고 우리를 이해하는 인문학이야기 ▲덕천초등학교 '인문역사분야 창의인재 육성 프로젝트'가 각각 선정됐다.

유진섭 시장은 "인문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 발맞춰 많은 청소년들이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인문학과 지역의 인문역사를 보다 깊게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인문학적 마음가짐을 확립해 인문역사 분야의 창의인재로 거듭나 지역 자원을 세계로 알려달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이다. 첫 번째 사업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의 전자선가속기 이용 축산 악취 저감기술 개발 기술 연구비는 총 16억 원으로 시는 올해부터 1억 원씩 3년간 총 3억 원을 투자하고, 농림부가 13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첨단방사선연구소의 방사선 융합 축산악취 저감 기술을 활용해 가축분뇨로 인한 2차 오염원을 차단하고 악취 문제를 해결해 축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두 번째 사업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농축산용미생물산업지원센터가 제안한 정읍의 특화작물인 구절초 부산물의 발효 공정을 활용한 기능성 고품질 사료 첨가제를 개발할 예정이다.

구절초 폐지원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지역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셋째로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이 제안한 폐지코로나(FPD) 항바이러스 후보 소재에 대한 천연동물약품 개발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폐지코로나 대상의 항바이러스 후보 소재에 대한 천연동물약품 개발에 양돈농가 공급을 목표로 한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 우리 시는 지역 중심의 R&D 사업을 위한 예산을 점진적 확대해 지역 현안과 연계·해결하겠다"며 "더불어 창업 생태계 구축, 특구 연계 기업 유치에 밀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

신태인읍사무소 부지 지상 3층규모... 행정·문화·복지기능 통합

정읍시 신태인읍사무소가 행정·문화·복지기능을 고루 갖춘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시는 신태인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현 읍사무소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682㎡ 규모로 행정문화복합센터를 신축한다.

행정문화복합센터는 공공 복합청사로 기존의 행정업무는 물론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체육 공간을 더해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들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총사업비 80억 원 중 농촌중심지 36억 원과 별도 시비 20억 원을 포함 총 5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며 상반기에 설계 완료,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는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실이 자리 잡는다.

또, 2층에는 주민건강을 위한 헬스장



정읍시는 신태인읍사무소 부지에 행정문화복합센터를 신축한다.

과 샤워실, 주민 소통·나눔 공간인 문화 카페가 들어선 3층에는 문화복지 및 다양한 활동을 위한 강당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현 신태인읍사무소는 1982년에 준공되어 지난 2018년 안전진단 용역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화된 현 읍사무소 청사를 철거하고 전 계층을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 환경과 주민센터 기능 및 문화기능도 고루 갖춘 주민생활 밀착형 시설을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난 17일 오후 고창군청 광장에서 지역 딸기 판매행사를 열어 준비된 물량 500kg(시가 600만원 상당)을 완판 했다.

고창군, 지역 딸기 사주기 '호응'... 500kg 완판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판로가 막힌 지역 딸기 재배 농가를 위해 고창군과 지역 주민들이 나섰다.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17일) 오후 군청 광장에서 지역 딸기 판매행사를 열어 준비된 물량 500kg(시가 600만원 상당)을 완판 했다.

딸기는 출하 시기 조절이 어렵고 장기 저장도 곤란한 작물이다. 고창군에선 20여 농가가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3~4월 딸기 수확철을 맞아 예년 같으면 학교 급식으로 딸기 판매가 많을 때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개

학이 연기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면서 딸기 농가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창군 딸기연구회 김강래 회장은 "개학이 또 연기되고, 소비가 줄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만 태웠는데 고창군과 주민들이 도와준 덕분에 한숨 돌리게 됐다"면서 고마움을 전했다.

군은 앞으로 공무원과 주민들이 지역 농산물과 축산물을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을 확산시켜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가기로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생활SOC 사업장 점검

권익현 부안군수는 18일 부안떡거리 종합타운과 종합가족센터, 나래청소년수련관 등 부안읍 도심권역에서 추진 중인 생활SOC 사업장 현장행정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행정은 생활SOC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향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권익현 군수는 민선7기 농정혁신을 이끄는 부안형 푸드플랜 사업의 전진 기지로 조성되는 부안떡거리 종합타운 예정지를 찾아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절차 등을 점검했다.

부안떡거리 종합타운은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산업 육성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코자 오는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00여억을 투자해 부안읍 봉덕리 일원에 조성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